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4. 19.(금)	담당부서	신북방통상총괄과
담당과장	전응길 과장(044-203-5680)	담 당 자	김현진 서기관(044-203-5682)

산업부, 우즈베키스탄과 농기계산업 상생협력 추진

- 타슈켄트에 한-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 센터 개소 -

- 우리 중소중견 농기계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거점 확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기간인 4.19(금) 10:00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농기계 관련 장비, 교육훈련 등에 산업자원ODA 66억원 지원/(기간) '16~'19

○ 개소식 행사에 한국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차관보, 산업기술진흥원 이사, 전라북도 부지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등과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농기계공사 회장, 투린대 총장, 관개·농업기계화대 부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 한-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센터 개소식 개요 >

◈ 일시/장소 : '19.4.19(금) 10:00, 타슈켄트 '한-우즈벡 농기계 R&D 센터'

◈ 참석 : (한) 산업부 차관보, 전북부지사, KIAT, 생산기술연구원장, 관련 기업 등 50명
(우) 농기계공사 회장, 투린대 총장, 관련 기업 등 50여 명

◈ 주요 내용 : 센터 개소식, 농기계 협력 MOU 체결, 센터내부 시찰 등

○ 동 센터는 한국의 ODA 사업으로 '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농기계 장비구축,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은 건물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사업으로 4년만에 조성이 완료되었다.

□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면화, 금,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과 인구 3천 2백만명 이상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2~'17)간 평균 7.4% 성장(IMF)을 달성하는 등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 특히, 농업은 우즈베키스탄 GDP의 28%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면화, 밭작물 등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관련 농기계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농기계의 2위 수출국으로 향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인접국가로의 농기계 수출도 기대된다.

* 주요 수출대상국 : 미국(55.6%), **우즈벡(4.7%)**, 일본(3.7%), 호주(3.0%),

* 우즈벡 트랙터 시장은 '07년부터 연평균 약 12.7% 성장, 시장규모는 약 11억불

□ 국내 농기계산업은 '00년 수출 1억불 돌파 이후 연평균 15% 이상 고속 성장하여 '13년 8억불을 달성하였으나 국내 쌀소비 감소 등으로 축소되는 반면,

○ 우즈베키스탄 농기계산업은 자체설계 역량부족 등으로 조립생산이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의 앞선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산업을 현대화하는 상생협력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개소식 축사를 통해, 한-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 센터가,

○ ❶ 우리기업의 중앙아시아 농기계 시장진출 거점 역할 수행 ❷ 한국의 중소·중견 농기계 기업의 부품과 기술을 활용한 양국의 농기계 합작생산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상생 협력 ❸ 한국 ODA를 통해 우즈벡 농기계 현대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산업협력 모델임을 강조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우즈베키스탄 농기계R&D센터」를 활용한 양국 공동 농기계 개량, 기술교류, 합작생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교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김현진 서기관(☎ 010-6800-75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센터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양국 농기계 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농기계 R&D센터 조성

* 공작기계 등 장비지원 40억 규모 포함, 총 ODA예산 66억원 / '16-'19(4년)

○ **(사업내용)** ① 기자재(설계 장비, 공작기계 등), ② 기자재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양성, ③ 농기계 공동 개량연구 및 기업교류 지원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수행기관)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동양물산

조감도	주요 구성	세부 시설
	▸ 공장동(2개층) ▸ 사무동(5개층) ▸ 총 4,429m^2	▸ 운영기관 ▸ 본부사무실, 준비실, 연구 및 조립공간 등 장비시설, 교육실, 제품 전시관 등
		▸ 시제품 생산용 Pilot Plant 시설 ▸ 시제품 분석/평가실

□ 사업추진 경과

○ '16년 설계S/W 등 약 6억원, '17년 공작기계 등 약 10억원, '18년 공작기계 등 약 11.3억원 규모 장비지원 완료

* 약 9억원 규모 공작기계 추가 지원 양국 합의('19.1월)

○ 설계교육('16년 5회 25명, '17년 5회 84명, '18년 6회 107명. '19년 8회 110명 예정) 및 CNC머시닝센터 운용교육(5명), 개량연구 지원('16~'17년 목화수확기 부품 4종)

○ 농기계R&D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컨설팅하고, 우즈벡 현지 농기계 유관기관*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을 제공

* 목화수확기 연구기관(BMKB, '17.3) 및 농기계 검정기관(UzSCCTATT, '17.8)

□ 사업 성과

우즈벡	+	한국
① 첨단 농기계 관련 핵심기술력 제고		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② 수입에 의존하던 농기계 자체설계 역량 확보		② 농기계 기업간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중앙아 진출 기반 마련
③ 현지맞춤형 농기계 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		③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④ 투르크 등 제3국 수출 및 외화획득		④ 침체된 국내농기계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기반을 제고

○ **(기술역량 강화)** 우즈벡은 농기계 설계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트랙터 등을 자체 설계 추진

* 우즈벡은 트랙터, 수송차량(트랙터가 견인하는 방식) 등 시험모델을 자체 개발(4륜 트랙터에는 자체브랜드(ZAMIN)를 명명하여 적극 홍보中)

○ **(신규 수출)** 우즈벡은 투르크에 면화수확기 1천대(약 3천만불) 수출, 한국 중소기업은 우즈벡에 동 수출용 핵심부품 136억원을 수출

수송차량 (트랙터 견인)	**트랙터** (3륜)	**트랙터** (4륜, ZAMIN)
		

○ **(양국 기업협력)** 동 사업 참여기관인 동양물산은 농기계 센터 內에 우즈벡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앙아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19년)

* 동양물산은 현지 합작회사 설립을 목표로 우즈벡 농기계공사와 협의 中

○ **(기술인력 확충)** 농기계 설계교육(강사급 포함) 및 CNC머시닝센터 운용교육을 실시하여 우즈벡 자체 농기계 개발역량 배양을 지원

○ **(제도 개선)** 농기계 R&D센터 조성과 근거 법령제정, 법인설립 지원을 통한 우즈벡 농업기계화 향상 기반 마련

□ 주요 구축장비

○ 우즈벡 內 농기계 분야 최고 수준의 개발장비로 구성

CNC Machining Center	Bending Machine
	
CNC Table Plasma Cutting Machine	Punching Machine
	
Surface Grinding Machine	Cylindrical Grinding Machine
	
Portal Control and Measuring Machine	3D Printer
	
3D Scanner	Micro vikers hardness&Microscope
	